스포츠산업 융자제도의 현황분석

Analysis for Loan System of Sport Industry

강호정
배재대학교

Kang ho-jung
Paichai Univ.

요약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제도는 1991년에 시행된 이후 17년째이므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의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원 실태를 융자지원 절차, 기금융자 규모, 융자지원 범위, 융자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bstract

Sport industry creates value-added b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oduct or service related with sports or sports. Because this industry shows promise in becoming a major industry area, the government is making an effort to bring up or develop it. The financing to firms of sport industry area(sporting goods industry, sport facility industry, sport service industry) with low interest rate and long-term repayment period on the basis of sports promotion fund is excellent scheme to promote sport industry. Nevertheless, Because many people indicate operational inefficiency of it, it is necessary to check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investigation for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public loan system using funds of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o the current status of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I. 서 론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및 그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포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제도는 1991년 국내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생산·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경영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1996년에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신규시설 설치 및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2006년에는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정보업 등의 스포츠서비스업이 최근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스포츠서비스업 융자를 시행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침 육성·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제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말 현재시점에서 총 483개업체, 1,311억원을 융자해주었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수체육용구업체의 설비자금, 연구개발 자금 및 원자재 구입자금 용도로 84개 업체, 140억 4천만 원을 융자해 주었고, 체육시설업체는 시설설치자금 및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390개 업체, 1,077억 1천만 원, 스포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설비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으로 7개 업체, 13억 9천만 원을 융자해주고 있다.

1991년에 시행된 이후 17년째이므로 스포츠산업 융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제도에 관한 연구는 2006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행해진 연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실태 및 현황,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실태 및 현황,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효율화 방안(업체선정 모형, 차등금리 적용 등) 등이다[4]. 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용실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타 정책자금 융자사업 현황

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 정책자금은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6,000억원의 중소벤처 창업자금 등 총 6개 자금에 2조 8,308억원으로 운용하였다. 정책자금의 전체 평균 대출 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하고 있다[5].

2. 산업자원부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산업기반자금 지원을 하였는데, 산업기반자금은 신성장 산업 발전사업, 지역산업발전사업,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성장 산업발전 사업의 경우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식기반산업 발전으로 나누어져 있고, 산업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 유통물류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 산업정보화 기반구축으로 나누어져 있다. 2007년 산업기반자금은 지원규모는 3,007억원이며, 신성장 산업발전에 1,185억원, 지역산업발전사업에 510억원,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에 775억원,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537억원이 지원되었다. 융자조건은 금리가 연 4.75%, 융자기간은 8년 이내(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 자금의 지원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누어져 있다[6].

3. 정보통신부

민간기업의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 실현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IT 중소·벤처기업의 취약한 IT 산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기술개발 위주의 출연사업과 연계하여 후속단계인 상용화 위주의 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균형적인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융자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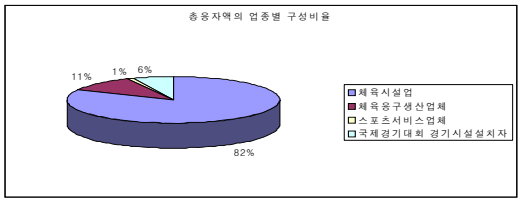
Ⅲ.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 분석

1.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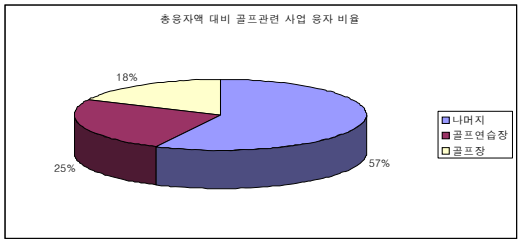
2007년 11월 말 현재시점까지 총 483개업체, 1,311억 4천만원을 융자해주었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수체육용구업체의 설비자금, 연구개발 자금 및 원자재 구입자금 용도로 84개 업체, 140억 4천만 원을 융자해 주었고, 체육시설업체는 시설설치자금 및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390개 업체, 1,077억 1천만 원, 스포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설비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으로 7개 업체, 13억 9천만 원, 국제경기대회 경기시설 설치자 80억원을 융자해주고 있다[3].

2.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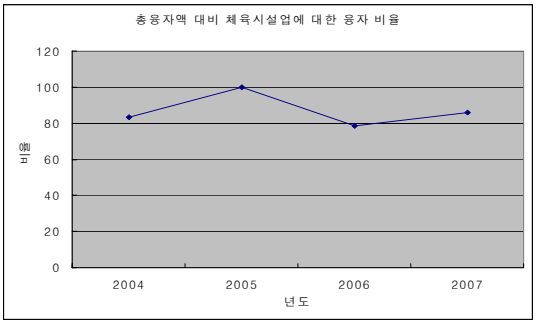
총 융자액의 업종별 구성비율은 체육시설업이 82.1%, 체육용구생산업체 10.7%, 스포츠서비스업체 1.1%, 국제경기대회 경기시설 설치자 6.1%로 체육시설업에 대한 융자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1참조). 특히 총 융자액 중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한 융자비율은 25.1%,이고, 총 융자액 중 골프장 사업에 대한 융자비율은 17.8%로 골프장 관련사업에 대한 융자비율이 42.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참조). 총 융자액 가운데 체육시설업에 대한 융자비율의 연도별 추이와 골프관련 사업(골프연습장, 골프장)에 대한 융자비율의 연도별 추이가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총 융자액 가운데 체육시설업에 대한 융자비율은 2004년 83.2%, 2005년 100%, 2006년 78.6%, 2007년 85.9%이며, 총 융자액 가운데 골프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비율은 2004년 83%, 2005년 76.6%, 2006년 68.9%, 2007년 37.2%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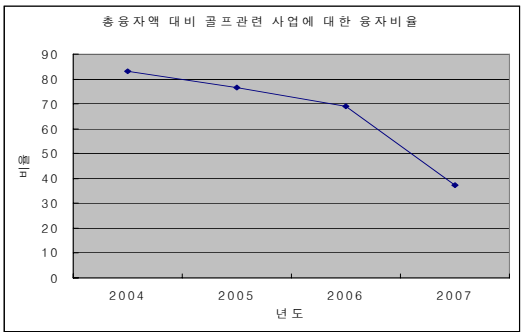
▶▶ 그림 1. 총 융자액의 업종별 구성 비율



▶▶ 그림 2. 총 융자액 대비 골프관련 사업 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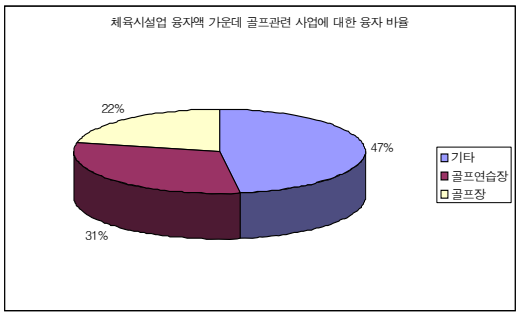


▶▶ 그림 3. 총 융자액 대비 체육시설업에 대한 융자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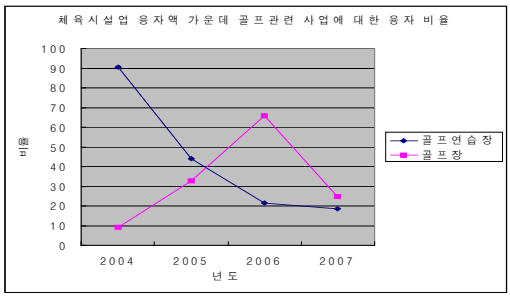


▶▶ 그림 4. 총 융자액 대비 골프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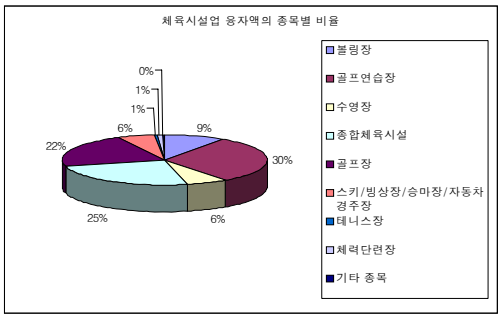
체육시설업 융자액 가운데 골프관련사업에 대한 융자비율은 골프 연습장이 31%, 골프장이 22%, 나머지가 47%를 차지하고 있으며(그림5 참조), 체육시설업의 융자액 가운데 골프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그림6참조) 골프연습장에 대한 융자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골프장에 대한 융자비율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7년에는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융자액 가운데 골프연습장에 대한 융자비율은 90.7%이고, 골프장은 9.1%, 2005년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융자액 가운데 골프연습장에 대한 융자비율은 44.0%이고, 골프장은 32.6%, 2006년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융자액 가운데 골프연습장에 대한 융자비율은 21.6%이고, 골프장은 66%, 2007년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융자액 가운데 골프연습장에 대한 융자비율은 18.7%이고, 골프장은 24.7%이다. 체육시설업의 융자액 구성분포는 <그림 7과 같다>



▶▶ 그림 5. 체육시설업 중 골프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비율



▶▶ 그림 6. 체육시설업 중 골프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비율의 추이



▶▶ 그림 7. 체육시설업 융자액의 종목별 구성 비율

3.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실태 분석

3.1 기금융자지원 절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지원 절차는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금융자지원절차와 유사하다. 다만 , 타 정책자금 융자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한 기술담보 대출의 경우 지원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한 측면이 있다. 기술담보 대출을 통한 융자지원 절차는 정책자금 신청, 대상기업 선정, 대상기업 결정 통보, 기술평가보증서 발급, 대출실행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3.2 기금융자 규모

타 정책자금과 비교하여 볼 때 기금융자 규모는 작은 편이다. 2007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체육시설업체 100억, 체육용구 생산업체 18억, 스포츠서비스업체 20억으로 총 138억원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청의 경우 2조 8,308억원, 산업자원부의 경우 3,007억원, 정보통신부의 경우 2006년 융자규모는 3,501억원이다.

3.3 융자지원 범위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의 지원범위는 체육시설업체의 경우 시설설치 자금과 개·보수 자금으로 나누어져 지원이 되고 있고,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경우 설비자금, 연구개발 자금,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경우는 설비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으로 나누어져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타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의 내용에는 연구개발 자금, 원자재 구입자금 외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3.4 융자지원조건

융자한도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의 경우 시설자금(설비자금 포함)은 5억~30억, 개·보수 자금은 3억~5억, 연구개발 자금 3억, 원자재 구입자금은 1억원이다. 반면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의 경우 시설자금은 10억~40억, 운전자금은 3억~5억이며, 산업자원부의 경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하여 20억 이내 이며, 정보통신부의 경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하여 20억~100억으로 융자한도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융자기간이나 융자금리는 타 정책자금과 비교하여 볼 때 좋은 편으로 볼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경우 서류상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고, 선정된 대상업체에 대하여 정해진 예산을 일정비율로 배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원업체가 담보력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타 정책자금의 경우 융자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평가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2]

Ⅳ. 결 론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제도는 1991년에 시행된 이후 17년째이므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용실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원실태를 융자지원 절차, 기금융자 규모, 융자지원 범위, 융자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참 고 문 헌▐

[1] 강호정, 이준엽, 현대 스포츠경영학, 학현사, 2005.
[2] 강호정, 전인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선정기준 및 융자금의 효율적 배분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2007.
[3]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레저운영본부 스포츠산업실, 내부자료, 2007.
[4] 송명규, 한태룡, 김진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및 효율화 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2006.
[5] http://www.smba.go.kr
[6] http://www.mke.go.kr
[7] http://www.mic.go.kr